

중죄 하나만 범해도 계체 소멸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4>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색(內色)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이며, 셋째는 내색과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색'이라는 것은 우비새가 손이나 발 또는 돌로 다른 이를 때리거나, '이것으로 인해 죽으리라' 하여 이로 인해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어도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어도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

에 이로 인해 죽게 되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어도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어도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

오계상경-8

'내색으로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만약 손으로 나무, 기왓조각, 돌, 칼, 창, 화살, 아연 덩어리, 주석 덩어리, 니무토막을 잡아 던지며 '이로 인해 죽으리라' 하여 이로 인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

이 세 가지는 모두 죽이는 방법이나 수단을 말한다. 손발과 몸을 내색이라 하는 까닭은 범부의 마음(凡情)으로 느낄 수 있고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도 막이나 기왓조각, 돌 등은 내색이 아니므로 '외색(外色)'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내색을 쓰기 때문에 내색과 외색을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

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 계만 범하여도 오계의 계체가 모두 깨지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본중죄를 범하면 단 한 가지 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계체는 모두 깨뜨려진다. 마치 인체의 중요한 한 부위라도 다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멀쩡하더라도 곧 죽게 되는 것과 같다.

손발·도구 사용 살인한 죄 참회 불가

죽지 않았으면 참회할 수 있는 죄 해당

것이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해쳐서 곧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했을 때, 이는 모두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다만 죽이려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허물은 있지만, 계체를 잃지는 않는다. 은증하고 부지런히 참회한다면 살심(殺心)을 없앨 수 있으므로 중품(中品)의 참회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계를 받은 이가 다섯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독약을 섞어 눈, 귀, 코, 몸의 부스럼에 바르거나, 음식 속에 넣거나, 옷이나 이불 속에 넣거나, 수레 속에 넣어두고 '이것으로 인해 죽으리라' 해서 만약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곧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이므로 참회할 수 있다.

이해 독약 같은 것으로 사람을 죽인 죄를 말한다. 손이나 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또 나무토막, 돌, 칼, 지팡이 등도 쓰지 않았으므로 내색이나 내색 아닌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로이므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영어를 만들어 죽이거나 핵(核)이나 덧으로 죽이거나, 함정에 빠뜨려 죽이거나, 길가에 내보내 죽이(velata)로 죽이거나 태를 떨어뜨려 죽이거나, 배를 눌러 죽이거나, 불이나 물, 구덩이 속에 떨어뜨려 죽이거나, 길가에 내보내 죽게 하거나, 태중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근을 받았을 때 방편을 일으켜 죽이는 것 등이다.

해, 밧, 쏘는 것 등은 모두 죽이는 도구들이다. 비타리는 시체를 일으켜 세우는 주술로, 인도에서 시체를 움직이게 하여 살인하게 하는 주법을 말한다. 위의 여러 가지 죽이는 도구나 방법 등은 요즈음의 참이나 포, 수류탄 등과 같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죽이는 도구나 방법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끊게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되고, 죽지 않으면 중품의 죄로 참회할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것이다.

<해인총림 윤원징>

"번뇌망상 다 놓아야 고통서 벗어납니다"

어느날 임제 선사께서 도량을 거닐고 있을 때 왕상시가 찾아와서 승당 안에 있는 승려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선사에게 말하기를 "저 승려들은 경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니까?" 했거든요. 그러자 임제 선사께서 "경전을 보지 않네" 했답니다. 이어 왕상시가 다시 "저 승려들은 좌선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 임제 선사께서 말하기를 "좌선을 하지 않네" 했답니다. 그러자 왕상시는 "경전도 보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했답니다. 임제 선사는 "부처나 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왕상시가 말하되 "금 부스라기가 비록 귀하다 하나 노 안에 들어 가면 병이 됩니다." 하자 임제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그대가 속된 사람이란 것을 벌써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유정물, 무정물 모두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성은 영원불변하지만 그 개체만 조금씩 변할 뿐입니다. 즉 불변한 것은,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성이 불변하다 것은 정진을 하면서 밀밀성성(冥冥惺惺)히 참구해 나아가 때 그 이치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참구일념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번뇌와 망상을 이겨내는 것이 참유학에 계합하는 길이라는 뜻이죠.

'내가 알고 있다' 혹은 '몰고 있다'와 같은 것은 번뇌입니다. 따라서 '이 것은 망상이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일으키는 생각들을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소견을 놓아 버릴 때 마음과 몸이 편안해집니다. 내 알고, 외 알고, 집면한 고통, 죄업을 스스로 해결하는 지름길은 바로 이것에서 출발합니다. 스스로가 지어놓은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용맹 정진을 해야 합니다.

법회중계

은하사 초하루법회

(2000년 4월 5일)



대성스님 (김해 은하사 주지)

육식은 진실 알 수 없어

본성 알아야 옳게 본 것

소견 버릴 때 심신 편안

이 일화는 평소 왕상시가 잘난 체하는 것을 알고 임제 선사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근수를 달아 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이다를 논하지만, 나의 마음 즉 본성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무대에서 시작해서 모르는 무대에서 끝나는 것이니,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것이 제대로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바로 들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안(眼)·의(意)·욕(欲)이 모두 진실한 것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고리만큼 노력하고 무한대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시작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쫓기는 듯이 죽음을 다투는 노력이 필요할 때 비로소 영원불변한 내 본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이 끝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불변한 본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개체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돌아가는 본성 자리를 일념으로 참구하여 색즉시공의 참다운 도리를 요득하는 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90년대 들어 극동불교에 관심

세계의 불교학 <14> 러시아 ⑤ <글>

구 소련이 몰락하면서 러시아 불교학계는 그동안 불교학의 초석이었던 인도불교에서 벗어나 극동지역의 불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변화의 원동력은 러시아 동양학의 주 텍스트였던 한역(漢譯) 경전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러시아에서 연구되고 있었던 동양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중국어'가 가장 발달되었다는 점도 이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중국불교에 대한 러시아 불교학계의 연구 깊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역 경전에 대한 번역과 주석 작업을 살펴야 한다. 이들 성과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토르치노프(E.A.Torchinov) 교수의 러시아어본 <대승기신론>이 있고, 이에 대한 주석서인 아바예프(N.V.Abaev) 교수의 <기신론>이 있다. 아바예프 교수는 <기신론>에서 현수(賢首) 스님의 <의기(義記)>와 종밀(宗密) 스님의 <원인론(原人論)> 등과 같은 한역 경전론(經論)의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면 도(道)를 깨닫는 분이 성인(聖人)이나 성인(聖人)이라 제가(齊家)를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을 할 수 있다.

러시아 불교학계의 한역 경전에 대한 번역·주석 작업은 중국불교를 연구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극동지역의 불교 종파·교리·문화 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이그나토비치(A.N. Ignatovich) 교수의 <Buddism V Yaponii. Ocherki rannei istorii>(일본 불교 초기사 개요)는 극동지역 불교 문화에 대한 최고의 연구서로 꼽히고 있다. 이 책에서 이그나토비치 교수는 '스님본에 초전된 백제불교 스토트 신앙의 습합 △호국불교 △승관(僧官)제도 △일본의 거불(巨佛) 조성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볼코프(S.V.Volkov) 교수의 <Rannyya istoriya buddhizma v Koree>(한국 고대 불교사)는 러시아에서 한국불교와 관련한 연구서로 유일하다. 볼코프 교수는 이 책에서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불교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불교에 대한 국가의 의도와 봉사 등을 조명하면

서 고대국가의 정·교 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불교를 국교로 그리고 유교를 이데올로기로 각각 규명했다. 이외에도 이 연구서에서는 국가의 관직제에서 스님의 지위와 역할을 소상히 조사하고, 일본 불교의 기틀을 다졌던 삼국시대의



◇부르아트(Burjat)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러시아 불교학자.

기신론 등 한문경전 주로 번역 한·일 고대 불교 연구도 눈길

스님들의 행장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또 모스크바대학에서 발간한 <Buddizm, gosudarstvo i obshchestvo v stranah Tsentral'noy i Vostochnoy Azii v srednie veky>(중세의 중앙아시아 극동에서의 불교, 국가, 사회)라는 논문집은 극동지역의 불교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논문집은 <구운몽>의 선불교적 논리, 중국 남·북조시대의 불교, 일본의 초기 불교, 유·불·선의 관계 등을 문

화사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불교학계는 90년대 이후 티베트·태극·미얀마 등의 불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도·극동불교와 같이 특정 화교를 형성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러시아 불교학계는 현재 불교의 종파·교리·역사 등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종파 연구에서는 각 시대의 사회·정치적 역학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고, 교리 연구에서는 자이나교

와 같은 타종교의 교리와 비교하는 등 매우 다양한 연구 텍스트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러시아 불교학자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본 경전의 '빈곤'과 불교미술·건축·음악 등의 '외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해결되리라 믿기는 어렵다. 또 현재 미개척 분야인 한국불교는 관련 분야의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 역시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당분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면 도(道)를 깨닫는 분이 성인(聖人)이나 성인(聖人)이라 제가(齊家)를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을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둘째 부(富) 부와 귀·셋째 강녕(康寧) 편안함·넷째 유효덕(攸好德) 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도 (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길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솔호소정액(蘇好素精液)」, 「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들이 40여년전 은사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개)와 감초 및 10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평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법인의 자금과 봉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광(靈寶)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외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 (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입원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뢰만 잘 풀어버리면 완쾌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을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